

# 우리나라 장군사회와 군사문제

《신한국군 리포트》 《선진국방의 지평》

지만원

군사평론가 · 시스템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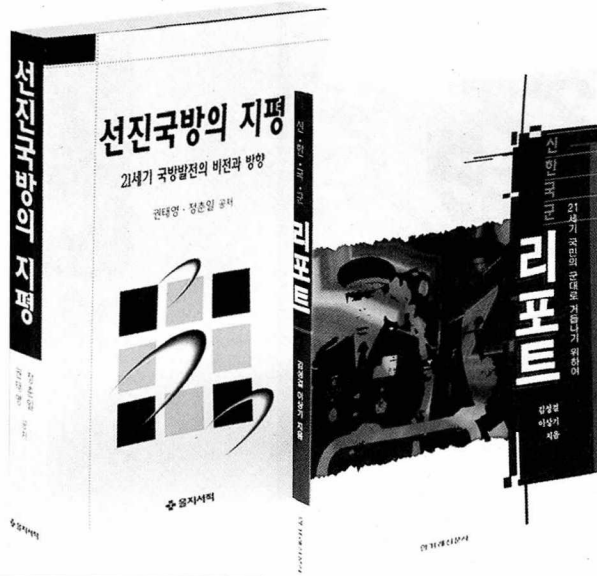
국방문제를 다룬 두 권의 책이 나왔다. 《신한국군 리포트》는 두 사람의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저술했고, 《선진국방의 지평》은 국방부 산하 연구소인 국방연구원에 재직하던 두 사람의 학자들이 저술했다. 기자들이 저술한 책은 기대했던 것처럼 저널리즘의 색깔이 짙고 소설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학자들이 저술한 책은 중후하고 교과서 같아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기보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매우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장서다.

## 적나라하게 묘사된 '장군'의 모습

군대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장군사회를 보면 그 군대를 알 수 있다. 《신한국군 리포트》(김성걸·이상기 지음)를 읽으면 한국군 장군들의 모습이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어 마치 현장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군은 지난 5년간 김현철이라는 나이 어린 사람에게 줄을 대야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장군들, 계급장을 돈으로 사고 팔아온 장군들에 의해 운영돼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게 한다. 이 책에는 장군들이 어떤 모습으로 김현철씨를 만났으며 그들이 김현철씨를 만나 그 자체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으며, 만나고 나면 어떤 혜택을 입었는지, 그리고 장관과 참모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들로부터 매우 실감있게 묘사되기 시작했다.

'93년 1월 경남고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김영삼 당선자를 요정에 모셨다. 흥이 무르익을 무렵 시중을 들던 여종업원들이 갑자기 도열하여 경남고 교가를 합창했다. 깜짝 놀란 김영삼 대통령이 연유를 물었다. 알고 보니 어느 한 장군의 작품이었다. 그로 인해 그 장군은 곧 국방장관으로 발탁됐다”.

출세란 별것 아니었다. 그 장군은 김영삼 당선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여러날 동안 여종업원들을 모아놓고 교가를 가르쳤을 것이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팁을 주었을까. 팁을 받고 교가를 불러주는 했겠지만 여종업원들은 출세라는 것이 얼마나 치사한 것이라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전문성과 사람의 됴됨이로 출세한 것이 아니라 기발한 장난을 해야 출세할 수 있었던 문명정부의



기자들이 쓴 《신한국군 리포트》에는 한국군 장군들의 모습이 여과없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어 마치 현장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국방연구원에서 재직하던 학자들의 저술인 《선진국방의 지평》에는 입문서 성격의 책으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아쉽다.

국방장관, 이런 식으로 출세한 사람은 장관이 돼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다닐까. 그 궁금증들은 멀지 않아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장관이 되자마자 장군들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다니기도 했고, 갑자기 장군들을 집합시켜 석양을 감상한 후 석양배를 마시러 가자고도 했고, 공중 앞에서도 특하면 양말을 벗어 보이기도 했다”.

지난 5년간 항간에는 “2성 장군 이상의 인사는 김현철씨가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그 소문이 낭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에는 군의 진급문화, 음주문화, 부끄러운 훈장타기, 사병을 하인처럼 다루는 모습, 윗분 따라 종교 바꾸기, 장교들의 반항, 각종 사고, 권영해 안기부장의 전횡, 진급에 죽고 진급에 사는 장군들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군은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대한 비전이 기자들의 독특한 시각으로 잘 정리돼 있다. 이 책이 아니었다

면 국민은 문명정부하에서 장군들과 군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책의 구성상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마지막 제5장의 성격이 처음 4개장의 성격과 다소 달라, 독자들의 읽는 분위기가 제5장에 들어서면서 끊긴다는 점이다. 앞의 4개 장을 읽은 독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앞으로 한국군 장교들의 모습과 군사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제5장은 무기와 군수산업 등과 같은 기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욕심 같아서는 미군, 이스라엘군, 스웨덴군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 장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금상첨화가 됐을 것이다. 한국군 장군들의 못난 모습과, 명예를 존중하는 외국 장군들과의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한국군 장군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갈 길을 제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 국방문제의 현실

《선진국방의 지평》(정춘일·권태영 지음)은 저자들이 머리말에서 밝힌 대로 톡톡히 발표했던 내용을 집대성한 책이기 때문에 분량이 방대하다. 국방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도들에게 많은 분야와 제목에서부터 해박한 지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분량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잘 다듬어져 있어 집필과 편집에 많은 정성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방연구원은 국방부 산하 연구소다. 정부 출연 연구소에는 결정적인 문화가 있다.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모든 논문은 보안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의 실상을 사실대로 진단하거나 장군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대안을 내놓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군의 실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책이 아니라 국방분야를 공부하는 학도들에게 국방과 군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입문서로 씌어졌다.

방위태세의 자주화 방향이 제시됐다. “북한 위협에만 대처하는 국방을 지양하고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국방을 만들자”, “대미의존의 군구조를 자립적 군구조로 만들자”, “군사비를 GDP의 3%에서 4%까지 확보하자”, “연구개발비를 3%에서 10%로 확대하자”는 선언적 내용들이다. 아쉬운 것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국방인력의 정예화 방향도 제시돼 있다. “양적 대군주의를 지양하고 소수정예군으로 가자”, “평이한 간부를 지양하고 엘리트 간부를 양성하자”, “현역중심의 국방인력을 전문 민간인력이 조화된 국방인력으로 발전시키자”, “권위, 명령형의 지휘통솔을 지양하고 민주협력형의 지휘통솔을 지향하자”는 선언적 내용들이다. 역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특히 제3장은 ‘선진국방의 비전과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제3장은 이 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당위성들만 나열돼 있지 우리가 바라는 대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당위성들은 군사문제를 공부하려는 학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들이다.

이 책에는 개선안 자체가 들어 있지는 않다. 저자들은 이 책에, 스스로 현실적인 국방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국방문제를 개선시키려는 학도들에게 “개선안을 만들 때에는 이러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라”는 지침들을 정리해놓았다. 이 책은 국방연구원이라는 연구소가 어떤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지 알고 싶은 이들에게 좋은 견본이 될 것이다. ◆

《신한국군 리포트》 한겨레신문사/A5신/286면/8000원  
《선진국방의 지평》 을지서적/A5신/488면/18,000원